

종계 · 부화장 기초 방역시설 지원 시급

◇ 취재 / 김종준 대리/기자
(jjun@poultry.or.kr)

종계 · 부화업계가 2002년 상반기 호황 후 2002년 7월부터 장기간의 불황에 직면하고 있다. 종계 · 부화업 불황은 2001년 원종계 수입량이 사상 유례없이 증가되었고, 최근 닭고기 소비 증가폭도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3월 중반 현재 병아리 가격이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종계업의 불황은 끝날 기미가 희박해 보인다. 이에 본고는 종계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점검해 보았다.

1. 종계 생산잠재력 600만수대 진입

최근 육용종계 2001년 원종계 수입수수를 보면 전년대비 189.3%가 증가하였고, 2003년 종계 생산잠재력은 6,856천수로 전년 5,982천수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종계 과잉 생산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금년 9, 10월에는 700천수 생산을 넘어서고 2004년 3월에는 800천수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종계수수 증가는 GPS의 경쟁적 수입과 별도 PS 수입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런 과잉 생산량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가령 아바에이카 PS을 생산하는 농가는 감소하고, 코브, 로스, 하바드 GPS 농장들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계 과잉 보유 업체에 대한 생산감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 종란 납품농장 부실화 초래

육계 불황과 병아리 생산 과잉이 겹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초반까지 실용계 병아리가격은 생산비 260~320원 미만에 형성되었다. 병아리 저가가 장기간 형성되고, 올해와 내년에도 병아리 가격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H 계열사 위주로 병아리 납품가격 상하선제를 폐지하고, 시장 가격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략 5개 업체이고, 나머지 계열사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거래 방식 변화로 일반 종계장은 일주에 몇 천만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계열사에



종란을 납품하는 종계·부화장도 계열사의 지나친 납품 가격 제한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종계·부화업계의 경영 악화는 쉽게 풀릴 기미가 없어 보인다.

3. 종계 강제환우 보편화

과잉으로 인한 불황이 수습된 후 종계 생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계장이 자체적으로 환우계 병아리 생산 중단과 물량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우려했던 병아리 생산수 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불황의 후유증을 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계업자들이 강제 환우를 필요에 따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강제환우에 대한 피해는 종계장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육계농장까지 오염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육계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시사해 왔다.

육계업계에서는 건강한 병아리 생산을 위한 강제 환우를 금지하고, 종계 육성장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 종계장에서 종계입식 후 병아리부터 도태까지 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종계장도 육성장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육성장 시설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의 종계 사육은 반드시 육성장과 성계사를 별도 시설에 사육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종계 사육과 상반되고 있다. 또한 병아리부터 도태시까지 한 계사에서 사육할 경우 질병이 계사 내 상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 시설 설치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종계 육성장을 운영하는 종계장은 몇 곳에 불과하다.

4. 차단방역 시설 미비

일부 종계장에서 아직도 육계와 종계 사육

을 구분하지 않거나, 종계장이 매매에 의하여 판매될 경우 그후 매입자가 어떤 용도로 활용하든 관계가 없는 실정이다. 위탁사육을 하는 종계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자립도가 낮아 차단 방역 시설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사 시설도 보온덮개형 비율이 높아 차단 방역 시설을 설치가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5. 가금티푸스, ND, AI 중점 관리

종계장에서 지적하는 중점관리 질병은 가금티푸스, ND, 가금인플루엔자 등이다. 가금티푸스는 난계대 질병으로 실용계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삼계를 생산하는 수탉종계 관리가 허술하여 매매가 자유롭고 이동 경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비정상적인 판매로 종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삼계를 생산하는 지역의 질병이 만연되고 있다. 또한 삼계를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에 수탉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농장도 있어 가금티푸스와 추백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가금인플루엔자와 뉴캐슬병은 종계 생산성을 저하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코네티컷주 뉴런던카운티에 소재한 식용산란계군 1,300천수에 약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호흡기 증상과 산란을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인근 농장에 1,000천수도 감염된 것으로 보도되면서 수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나라 종계 농가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6. 종계·부화업 발전을 위한 검토할 과제

종계·부화업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급조절이 우선 필요하지만 더불어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종계업계가 검토할 과제를 제시코자 한다.

1) 소독시설 설치비 지원

전국 175개 종계장의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종계·부화장 소독시설 중 자동안개분무 시설이 가장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계·부화장에 설치한 소독시설로는 자동안개분무, 소독조, 바닥소독조, 대인소독시설인데, 수동분무식 소독조는 98%, 바닥소독조는 82%로 설치비율이 높지만 자동안개분무는 19%, 대인소독시설은 33% 설비비율이 저조하였다. 또한 1.6%의 농가가 아예 소독시설이 없고, 반면 소독시설을 전부 갖춘 농가는 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설령 종계·부화업을 위하여 소독 시설을 설치했다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차단 방역은 기대할 수 없다. 시·군에 등록할 때 소독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되어야 하며, 등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점검은 물론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 소독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닭 전문 수의사 참여 확대

종계·부화장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방역을 전담하는 인적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종계·부화장의 노동력을 조사한 본 결과 일부 대형 종계장을 제외하면 농장방역은 농장주와 축산전공자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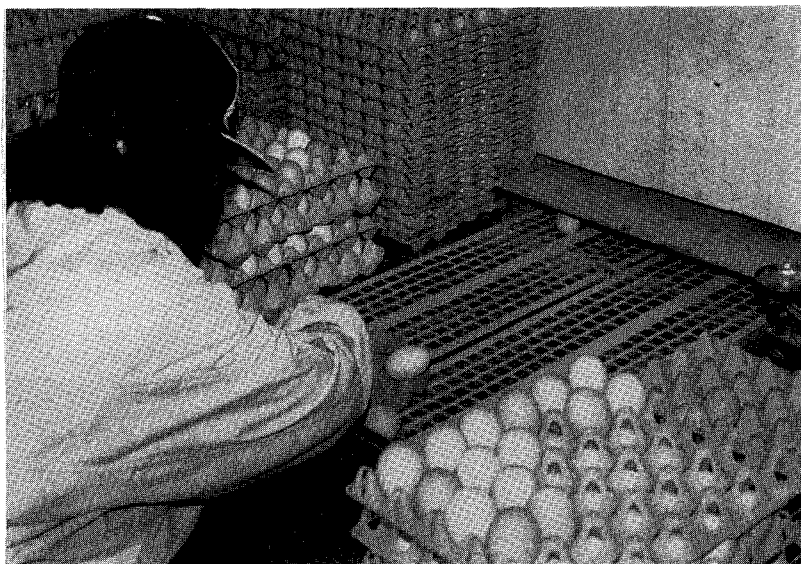
정부와 생산자단체에서 종계·부화장에 수의사를 고용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종계·부화장 관리는 결국 농장주가 아니라 실질적 수의사가 전담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수의사의 역할은 종계장의 방역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수의사 확보가 어려우면 닭질병 전문 수의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편으로는 공익수의관(법률 제정중)을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공익수의관을 민간 업체에 고용한다는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개정할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고, 일반 종계장 배치가 어려우면 우수종계장인중 종계장에 우선 배치하는 방법도 있다.

3) 종계·부화업 자격증 부여

종계·부화업에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종계업은 육계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종계업의 진·출입이 자유롭다면 지금과 같이 수급 불균형으로 호황보다는 불황의 골이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종계업자일 것



이다. 또한 수입자유화와 국가간 교역증가, 외국기업 진출, 닭고기 수입증가, 국내외적 질병 발생현황 등 정보에 어둡다면 종계·부화업은 온전한 산업 유지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새로 진출하거나 기존의 사양가도 일년 일정기간의 위생, 질병, 사양관리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수료한 사람만이 종계업을 영위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4) 농장간 배치 간격 조정

농장간 배치 간격이 멀수록 좋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뉴캐슬병, 가금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은 인근 농장에 감염되면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런 질병 전파 요인을 볼 때 종계장 인근에 실용계 농장이나 가금 농장이 위치한다면 질병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종계업 등록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5) 농장 HACCP 도입 사전 단계 필요

종계장과 부화장을 한 장소에서 운영하거나 부화장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종계장과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면 각종 차량과 사람의 출입량이 개별 종계장이나 부화장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한 차단 방역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종계장 및 부화장이 처한 실정을 볼 때 직접적인 HACCP 도입은 현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부화장방역실시요령(제정중), 추백리방역실시요령, 종계위생관리요령, 뉴캐슬병 방역지침서(SOP)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업계 단위의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앞서 지적한 제도를 준수하는 농장들이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로써 사료회사, 동물약품 회사, 도계장은 HACCP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계만이 HACCP 도입을 늦추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6) 원종계(GPS) 능력 검정제 도입

현재 종계(PS) 일반 검정을 받은 종계 중 종계 능력을 검정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검정소에서는 출품한 종계의 종란을 임의로 수집하여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검정소에서 발표하는 계종별 종계 능력은 비교할 수 있지만 원종계 경제 능력은 시험 사육 조차 없는 실정이다.

종계업계서는 종계 능력 검정과 더불어



GPS 능력도 검정 받아야 하는 여론이 있다. 종계(PS) 능력이 좋더라도 원종계(GPS)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 닭고기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7) 종계·부화장과 계열사 협력관계 회복

종계·부화장과 계열사간의 병아리 공급 계약으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두 업계 간 협력관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계열사는 병아리를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종계·부화업자는 생산자로서 서로간의 공동이익을 분배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병아리 과잉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일방적인 구매 가격을 낮추거나 조건을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건전한 종계업 발전에 어긋난다고 본다.

현재 병아리 수급 상황으로 보아 병아리가 품질 될 가능성은 적지만 종계장이 안정된 사업을 이끌어야 건강한 병아리 공급도 유지될 것이며, 특히 생물을 다루는 1차산업에 2차, 3차산업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양계**